



김 실 중 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운영지원팀

서언

한 세대동안 우리나라 사료 산업 및 축산업 발전에 노력한 단미사료협회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단미사료협회 그리고 회원여러분!

필자는 단미사료산업을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것이 60년대의 우리나라 수출상황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랴도 수출을 하여 보겠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모 기업은 오죽했으면 가발수출을 시도 하였겠습니까?

오늘날 수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수출만이 경제성장의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하였고, 정부는 정부대로 손건어 부치고 줄기차게 참여하여 결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오늘의 수출대국 대열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단미협회를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아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리고 남이 처리를 걱정하는 것까지도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축 자원화를 꾀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동종 산업간의 갈등, 업계 간의 상충 등 거의 30년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숭한 고충을 극복하여 오늘날의 사료산업, 축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과제는 “앞으로 우리소비자는 뭘 원하고 따라서 양축가는 어떻게 가축을 사육해야 하고 이에 따른 우리사료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친환경시대입니다. 농산물도 친환경, 축산물도 친환경, 결국 웰빙 시대는 이제 사회적 웰빙 즉 LOHAS시대가 됐다. 유기축산물 시대의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단미사료 30년에 즈음하여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한국단미사료산업에 대한 회고

국내 유기축산물의 현 위치와 발전방향

1. 도입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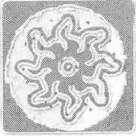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욕구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안전·위생 축산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웰빙에서 LOHAS족 사회적 웰빙의 붐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유기축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01년 7월 제24차 WTO와 FAO산하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유기가축분야에 대한 일반원칙과 사육·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 유기축산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01년 7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기축산물 및 전환기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서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03~'05년동안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07년 6월 현재 54건이 인증되었으며, 축종별로는 한우가 5건, 육우 4건, 젓소 5건, 돼지 5건, 산란계 20건, 육계 12건, 산양 3건으로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유기축산물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기축산 여건은 초보단계로 중국과 호주와 같이 광활한 국토에서 대단위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비교하여 유기사료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유기축산물의 생산단가 절감이 어렵고, 유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통비용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유기축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 또한 제한적이어서 유기축산물의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생산할 수 있는 무 항생제축산물을 지난 3.28일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축산농가의 진입 완화와 농가 생산비 절감,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일정수준 이상의 친환경축산물 공급물량을 확대를 통한 소비의 저변확대에 커다란 의미를 가질수 있다.

2. 유기사료의 생산이 곤란한 이유

유기사료란 유기적 재배법에 의해 생산된 사료를 말한다. 유기적 재배법도 매우 복잡하여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종자를 이용하여 유기농법으로 수년간 재배한 토양에서,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하여야 한다.

사료를 생산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점과 유기비료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라 할 수 있다. 즉, 유기사료는 곡물사료이든 조사료이든 생산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재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중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경종농가와 연계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⑬

경종농가에서 생산된 작물을 사료화하고 친환경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를 경종농가에게 공급하여 유기질 퇴비로 활용토록 하여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유기사료의 자급생산은 가능한가

유기축산은 먼 길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가축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 항생제 등 사용제한에 대한 질병 등도 넘기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료분야라 할 수 있다. 축산을 축종별로 크게 나누면, 한우와 낙농, 양돈, 양계로 분류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양돈과 양계의 사료는 곡류를 원료로 하는 농후사료 의존도가 극히 높고, 곡류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양계와 양돈은 유기축산을 하더라도 유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한우와 젖소는 반추가축으로 조사료의 자급으로 유기축산의 접근이 쉬워진다. 사료작물의 생육특성상 유기재배에 매우 근접하며, 잡초방제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료작물은 문제없이 유기재배가 가능하여 유기사료로 이용이 용이하다. 즉 유기적 재배에 의한 수량 감수폭을 규명하여 하작물과 동작물별로 유기재배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작부체계를 선정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기축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떤 형태이든 친환경축산이 자리잡아갈 것이며 그 종착점이 유기축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유기축산을 염두에 두고 친환경축산을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유기축산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국내 유기축산을 시행초기로 유기사료 확보, 사양관리, 유통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농가 및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업무, 유기사료 검정, 유기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생산물에서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육단계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기배합사료의 성분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사료관리법 제10조 근거한 사료공정서에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시·도에서 유기사료로 성분등록토록하는 등 사료검사요령을 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유기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HACCP도입을 추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기축산물 및 유기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확대하고 현장과 접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유통관리를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과 접목시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㉟